



### 전화 걸고 받는 요령

현대 문명의 이기 중의 하나가 바로 전화의 보급이다. 처음에는 유선으로 음성통화만 가능하던 전화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도 가능하며 문자와 멀티미디어 전송 그리고 인터넷과 간단한 사무 처리까지 가능한 세상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생들까지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인 전화를 사용하는 기본 예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휴대전화의 보급에 맞추어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과제이다.

간단한 문자메시지의 전달이 음성통화보다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보니 너무 축약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기성세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자의 사용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말이나 문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므로 문자의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화는 음성통화가 그 주된 사용목적이므로 음성통화 시에 전화를 걸고 받는 예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전화를 받는 요령

- ① 전화벨이 울리면 즉시 받는다. 벨이 여러 번 울린 뒤에 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례가 된다. 사정이 있어 3번 이상 벨이 울린 후에 받았을 때는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 ② 전화를 받으면서 "네, 000입니다."라며 자신의 신원을 밝힌다. 받자마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휴대전화의 경우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호칭을 불러주면서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통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라고 물어서 확인한다.
- ④ 전화를 받을 때는 메모 준비를 하고 용건을 듣는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전화를 받

으면서 메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메모를 할 수 있는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⑤ 용건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요약, 복창하여 확인한다.
- ⑥ 마무리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통화를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 전화를 거는 요령

- ① 전화를 걸기 전에 상대방의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뒷사람일 경우 또는 친구나 동료, 그리고 아랫사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한다.
  - ②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을 밝힌 후 상대방을 확인한다. 휴대전화에 전화를 할 경우 지인일 때는 발신전화 번호 표시로 이미 전화를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가 많지만 공무를 위하여 일반전화로 전화를 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말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받으면 "죄송합니다만, 000님 부탁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 ③ 원하는 상대자가 받으면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용건을 간결하게 말한다.
  - ④ 용건이 끝나면 통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마무리 인사를 하고 통화를 종료한다.
  - ⑤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 전화는 건 쪽에서 먼저 끊는다. 받은 쪽이 먼저 끊으면 상대방이 용건을 다 말하기 전에 통화가 끝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주 뒷사람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끊은 것을 확인한 후에 통화를 종료한다.
- 이상 음성통화 시의 전화를 걸고 받는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인 세태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기분은 아랑곳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올바른 전화예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밝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고령으로 살 수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공통적인 목소리는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다.

스스로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반대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명력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 날씨도 춥고 움직이기 싫으니까 더욱 반대생활로 실천하는 요가 삼매경에 빠져보면 어떨까요?

현 자세는 골반과 허리에 생긴 비틀림을 바로잡아주고 골반의 이상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좋은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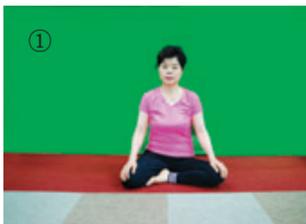
**동작①:** 앉아서 왼발은 앞으로 접고 오른발은 엉덩이 뒤로 접어 척추를 바로 세운다.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서 양손을 무릎 위에 놓는다. 30초씩 복식호흡으로 유지, 양쪽 번갈아 실시.

#### 강한 자극이 골반까지 전달 유연성 업!!!

**동작②:** 현 자세로 한 손 한 손 차례로 등 뒤에 짚고 호흡을 마시며 골반을 들어 올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다. 머리는 뒤로 떨어뜨린다. 10초 유지, 양쪽

#### 현 자세!!!

**효능:** 골반의 높낮이가 비뚤어지면 허리의 질병, 생식기 이상, 내장병, 신경통, 부인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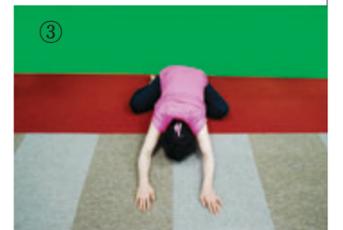
3회. (팁: 2,4번 동작은 골반과 허벅지를 앞으로 밀어준다.)

#### 피로 • 스트레스는 가라!!!

**동작③:** 현 자세로 한 손 한 손을 앞으로 뻗는다. 숨을 마시며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천천히 전굴한다. 숨을 내쉬며 10초 유지, 양쪽 3회씩.

#### 옆구리 군살제거, 예쁜 가슴 업!!!

**동작④:** 현 자세로 왼손은 엉덩이 뒤 바닥에 짚고 호흡을 마시며 골반과 상체를 들어 올려준다. 내쉬는 숨에 오른손은 위로 뻗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각각 3회 실시.\*



### 莫之能先也

막지능선야  
물보다 능히 앞선 것이 없으니

#### 도덕경 78장 해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양육한다. 물이 없으면 인간도 생명체도 지구도 없다.

물리적(物理的) 관점에서 물(水)을 본다면, 물은 곧 변화의 주체이며 생명의 원천(源泉)이다. 행성을 조사할 때, 물의 존재 여부를 살펴 생명체의 존재확률을 계산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물이 없다면 생명체도 없다는 말은 대단히 과학적이다.

물은 0도씨 이하에서 얼음으로 변하며,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인 수증기로 변한다. 이러한 물의 성질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눈, 비,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몰아치는 태풍. 물이 없거나 순환이 멈추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지구의 모습도 지금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세상에 물이 없다면 아마도 생명체가 없는 무인지경(無人之境), 사막, 황무지, 어둠에 갇힌 우주에 떠다니는 이름 모를 혹성,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성리적(性理的) 관점에서 물을 본다면, 도덕경 8장에 "가장 순수한 선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물의 선한 작용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툼이 없는 것이요, 물은 못사물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항상 머물러 있고.

그러므로 도인에 거의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 도인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요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말없이 하늘의 빛(이로움)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어, 도인은 믿을 수 있는 말만 하므로 나라가 저절로 올바르게 다스려지는 것이요, 나라의 모든 일이 저절로 쉽게 몰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은 도인이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조화롭게 행동하기 때문이요.

이처럼 도인은 오로지 다른 사람과 부딪쳐 다투지 않으므로, 그래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낮고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데, 또한 모든 대상을 이롭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생명의 근간이 되는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한다면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도인(道人)과 성인(聖人)이 꿈꾸는 도의 세계, 이상향, 무릉도원의 별천지로 화하게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天下莫柔弱於水(천하무약역수): 세상에 물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없고

而攻堅強者(이공경강자): 그러면서도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 물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

莫之能先也(막지능선야): 물보다 능히 앞선 것이 없으니

以其無以易之(이기무이이지): 물은 다른 것을 가벼이 다룰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않소

지승강): 고로 물이 굳센 것을 이기고

柔之勝強(유지승강):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며

天下莫不知(천하무부지): 세상에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莫能行(막능행): 능히 행하는 사람이 없소

故聖人之言云曰(고성인지언운왈): 고로 성인의 말씀에 이르기를

受國之是謂社稷主(수국지시위사직주): 나라를 위해서는 치욕도 감수하는 자를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受國不祥是謂天下王(수국불상시위천하왕): 나라를 위해서는 재앙도 감수하는 자를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 하니

正言若反(정언약반): 바른 말은 반대로 들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처럼 살지를 못하고, 짐승의 세계처럼 약한 것을 잡아먹고 군림하는 약육강식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니, 이러한 말들이 다 우습고 어이 없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 허만욱 승사 칼럼

### 우주 만물의 근원 물질은 하나님의 영

승리제단은 하나님의 영과 그 실체를 직접 영접하는 곳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원소인 동시에 미세한 알갱이(미립자)들이다. 책상, 의자, 시계는 물론 주전자, 밥, 빵 등 모든 물질이 하나같이 미세한 알갱이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결국은 미립자요 원자요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핵과 양성자가 있고, 주위 에선 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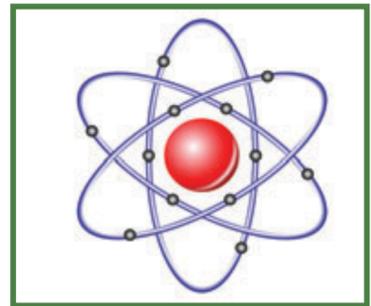
이러한 상태를 하나 님이 마귀의 욕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의 소재를 밝히신 것이다.

유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이 애타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울창한 숲을 향해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정화수(井華水)를 떠 놓고 기도를 드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쩌다 효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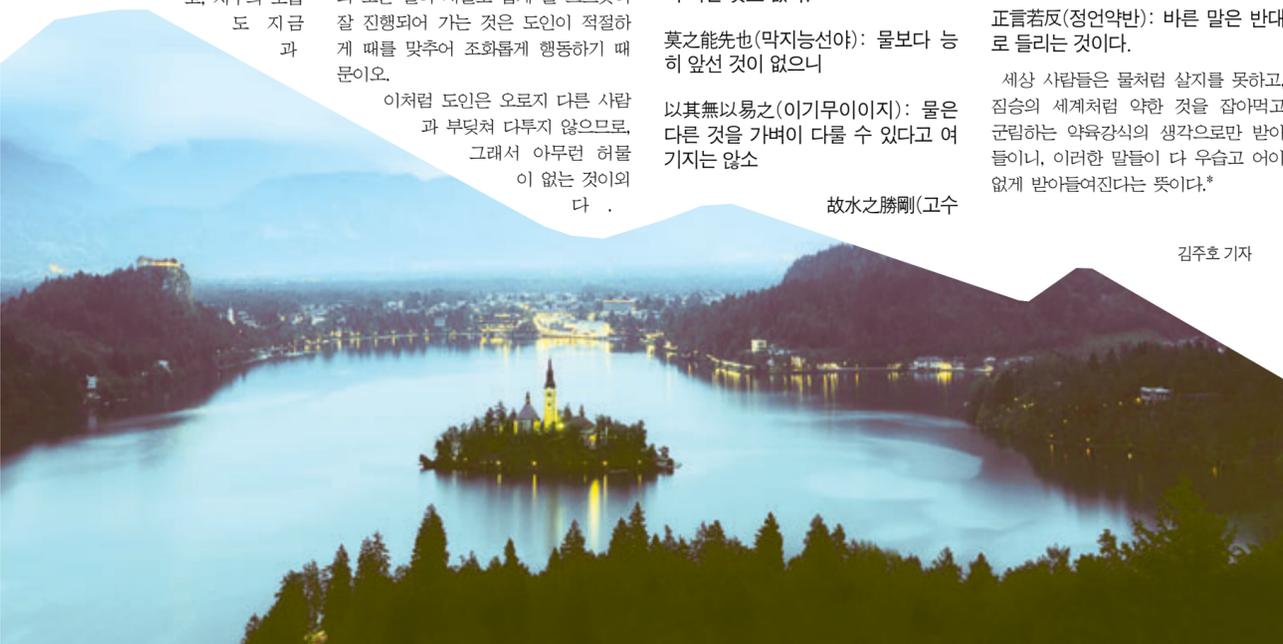
그런데 이처럼 갈구하던 하나님의 영과 동시에 그 실체를 함께 영접하는 이 곳 승리제단(아말포 성도들은 각각 "호박이 넘볼까 골러들어왔다"는 속담처럼 의외의 황제가 아닌, 참 생명의 희귀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어찌 세상 일과 견줄 일이겠는가.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내리시는 십승지인(十勝之人) 정도령은 나라를 죄를 벗고, 본심을 되찾으신 이긴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현인신(現人神)이다.

그 증거로 그의 몸에서는 이슬성신이 항상 샘솟는다. 이긴자아말포 어둠의 세상에서 죽음을 속명으로 여기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나타나신 삼신 할머니요 정도령이시다. 온 우주의 영계(靈界)의 두령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시여, 영광 영원 무궁하시어!\*



원자 모형



故水之勝剛(고수)

김주호 기자

###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 673-4635
- 평택제단 : 010-9261-9974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포항제단 : (054)291-6867
- 순천제단 : (061)744-8007

- 정읍제단 : (063)533-7125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43)233-6146
- 충주제단 : 010-9980-5805

- 橫濱祭壇 : (045)261-6338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久留米祭壇 : (0942)21-4669
- 岐阜祭壇 : (0584)32-1350

- 大阪祭壇 : (06)6451-3914
- 神奈川祭壇 : (045)451-3150
- Philadelphia : (215)722-2902
-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